



Deloitte Newsletter

업계 주요 뉴스

회계, Tax, M&A 등 관련 업계의 주요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부실 상장사는 회계법인 강제지정

오는 11월부터 재무 상태가 부실하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해 회계 분식 가능성이 높은 상장 기업들은 금융 당국이 강제적으로 회계법인을 지정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상장 회사 가운데 동종업계 평균 부채비율의 1.5 배 이상인 반면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회계법인을 금융 당국이 강제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주 채권 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주 채권 은행이 금융 당국에 회계법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IT·보안분야 경영 컨설팅까지... 회계법인 주력업무 바뀐다

회계법인들이 본업인 회계 감사를 넘어 세무, 구조조정, 정보기술(IT), 보안,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경영 컨설팅 영역으로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낮은 감사보수로 인한 회계감사 시장의 성장 정체, 재무제표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숫자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 집단이라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회계법인의 업무 다양화가 회계법인의 고유 업무인 회계 감사를 소홀히 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진영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 같은 회계법인의 업무 영역 확대가 진행되면서 회계법인 스스로 감사와 컨설팅 업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쓴다”며 “우리 4 대 회계법인도 자본 시장의 기본 인프라인 회계 감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터지는’ 세무법인 출혈 경쟁

‘출혈 경쟁과 양극화’, 요즘 국내 세무시장 형편을 압축한 두 단어입니다.

9월 25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법인 수(매년 3월 기준)는 2011년 274개에서 2012년 319개, 2013년 354개로 매년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월 말까지는 422개로 증가가 되고 있으며, 등록 세무사 수도 2011년 9284명에서 올해 3월에는 1만 64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경쟁이 격화되어 세무사가 소득세·부가세 등 세무기장을 대행해주고 받는 수수료가 20여년간 평균 10만 원으로 제자리 걸음입니다. 세무시장 ‘파이’는 정체 상태인데 매년 세무법인과 세무사 수는 늘고 영향력 있는 신설법인 출현으로 중소 세무사들 입지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세무업계 상황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루이비통 등 유한회사도 내년부터 외부감사 받는다

유한회사라는 그늘에 숨어 외부감사와 규제를 피해 왔던 루이비통과 샤넬, 에르메스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 회사들이 내년부터 주식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을 받게 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포함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10월 7일)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회계제도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할지, 이보다 높은 자산 500억원 이상으로 할지는 시행령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자산총액을 120억원 이상으로 정하면 유한회사 1500여곳이 내년부터 외부감사를 받게 됩니다.

IB 업계 ‘가업승계 컨설팅’ 군침

가업승계 중소·중견기업 인수·합병(M&A)이 주목을 받자 이와 관련된 컨설팅 사업이 로펌·회계법인·투자은행(IB) 업계의 틈새 비즈니스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가업승계 전략을 제공해 기업 ‘오너’의 갑작스러운 유고 시 상속세 폭탄을 맞거나 재원 마련을 위해 지분 매각에 나섰다가 경영권까지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게 서비스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가업승계가 여의치 않을 경우 회사 측에 매각을 권유하고 인수자를 연결하는 등 별도의 ‘플랜 B’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삼일, 딜로이트 안진 등 주요 회계법인들도 별도 팀을 꾸리거나 기존 전문 인력을 활용해 가업승계와 기업 매각 과정에 필요한 각종 자문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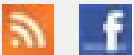
건설 경기 회복에 쏟아지는 건설사 매물... M&A 성공할까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건설사들이 인수합병(M&A)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아파트 가격 및 주택 거래량 등 주요 주택시장 지표가 개선되자 건설 업체들의 매각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M&A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대형 업체를 제외하면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건설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M&A 시장의 큰 손으로 등장한 사모펀드(PEF) 현금 흐름이 좋지 않고, 기업가치를 높여 매각하기 쉽지 않은 건설업체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더라도 일부 상위 건설사들외엔 경기 회복의 수혜를 누리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책임 '프로보노'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를 꼽습니다. 여기에 국세청이 분류한 관세사·변리사·건축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 등 9개 직군을 포함하면 전문직 종사자는 10만 1,000여명에 이릅니다. 이들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기여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최근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중 하나가 '프로보노'입니다. 이는 로마시대부터 이어진 사회지도층의 공익에 대한 헌신과 사회기부활동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로보노 활동의 대표적인 실천가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 빌 게이츠입니다. 재단을 만들어 국제적 보건의료 확대와 빈곤 퇴치, 그리고 미국 내 교육기회 확대와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 사회공익을 위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프로보노는 아무리 나눠줘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전기부와 다릅니다. 또한 금전기부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따르지만 프로보노에는 재능기부자의 시간과 의지만 있다면 수혜자들은 돈보다 소중한 재능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우리 경제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Deloitte Korea](#) | [RSS](#)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9층
150-945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와 그 회원사들의 네트워크는 법적으로 독립된 조직입니다.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와 각 회원사의 법적인 구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www.deloitte.com/kr/about 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